**엡0612 Note**

**◆악령의 4부류 <케네스 해긴>**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필요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라서, 내용의 연결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은 4가지의 종류, 부류, 계급이 있다고 하시면서, 바울이 이런 마귀들의 능력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으로 나열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엡0202.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너희가 지나간 시절에 이 세상의 주행로(走行路)를 따라①, 공중(아에르:자연적으로 둘러싼 공기,대기,공중)의 권능의 군주 곧, 불청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는 영(靈)을 따라② 걸었느니라.

엡0612. 이는 우리가 육신과 혈을 상대로 씨름(팔레:씨름) 하는 것이 아니고, 방백(아르케:시작,우두머리,모퉁이,첫자리,방백,권세,주권,원리,통치)들을 상대로,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자유,행정장관,군주,통제의 상징,영향력,권위,사법권,권리)들을 상대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지배자들(코스모크라토르: 세상 통치자,사단의 별명,통치자)을 상대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포네리아:타락,악독,음모,죄악,악함,부정)을 상대로 씨름을 함이라.

◇세개의 하늘/사탄의 왕국의 영역/ 귀신의 계급

고후1202. 십 사년이 넘는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남자를 곧, 셋째 하늘에로 잡혀 올라간 어떤 이를 내가 알았느니라, (몸 안에서인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또는 몸 밖에서인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와 둘째 하늘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늘 ; 대기권

1. 방백들 ;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이들은 다른 계급들로부터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권세도 없고 자기자신들의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1. 권능들 ;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3.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 ;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높은 지위의 귀신들

네가 상대해야 할 가장 높은 영들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이다

이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

둘째 하늘 ; 대기권 밖의 우주 high place.

4.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존재합니다.

단10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수령(사르:수령,장관,두목,대장,지배자,관리자,주인,통치자,고용주,청지기)이 이십 일일 동안 나에게 맞섰느니라[아마드:서다,뒤에 남다,지정하다,일어나다,확실히 하다,계속하다,거주하다,정하다,두다,나타나다,일으키다,남다,(확고히,옆에,잠잠히) 서다,머무르다,체재하다] 그러나 보라, 머리 수령(사르)들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이에 내가 페르시아의

왕(멜레크:말라크에서 유래, 왕,왕의)들과 함께 거기에서 남아 있었느니라,

셋째 하늘 ;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물론 이곳에는 악한 영이 없습니다.

**1.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존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오직 3부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 위의 것들만 신경쓰면 된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루겠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신실하게 행할 것을 권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역을 완수하라. 신실하라. 때가 가깝다."

**2.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 ;**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높은 지위의 귀신들

네가 상대해야 할 가장 높은 영들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이다.

이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 믿는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

골0113.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위임 받은 권능, 엑수시아:능력,특권,힘,재능,지배,영향력)으로부터 건저내셨으며(뤼오마이:돌진하다,끌어내다,구출하다,구원하다,구하다,건저내다), 또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구약: 말쿠트, 신약: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메디스테미:운반하다,멀리 옮기다,면직시키다,바꾸다,유혹하다,내놓다,번역하다,돌리다).

골0114.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몸값을 치러 자유케 함'[아폴뤼트로씨스:아포(분리)와 뤼트론(풀어주는 어떤 것,몸값)의 합성어,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을, 바로 그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

네가 이 땅에서 상대해야 할 가장 높은 유형의 귀신들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들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관자들이다.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들도"나는 그런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놓고는 1년도 못가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야 마는 이유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다.

네가 인정하고 싶건 말건 상관없이, 그들이 너의 가까운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누구이건간에,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한 것이며, 이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인, 이 영들에 의해 적게든, 많게든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빛의 왕국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어느정도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던 일들을 행하고 마는 것이다

Ω엡0201. 그리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생명이 없던) 너희를 그분께서 소생시키셨느니라.

엡0202.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너희가 지나간 시절에 이 세상의 주행로(走行路)를 따라①, 공중(아에르:자연적으로 둘러싼 공기,대기,공중)의 권능의 군주 곧, 불청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는 영(靈)을 따라② 걸었느니라.

엡0203. 육신의 욕망들과 정신(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면서, 우리 모두 역시 지나간 때들에 그들 사이에서 우리 육신의 욕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를 가졌느니라(아나스트레포:뒤집어 엎다,돌아보다,살다,거주하다,처신하다,왕래하다,던지다,사용되다). 그리고 본래[퓌씨스: (반복이나 확장에 의한) 성장,자연적 산출,종(種),종류(種類),타고난 성향,성질,본래의 용도,본성,인류] 다른 이들과 똑같이 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이 항상 사람들을 사로잡아 귀신들리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귀신들리는 경우는 모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한다.

예를 들면, 권세(권능)들을 지배하고, 권세(권능)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권세(권능)는 정사(방백)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일을 시킨다.

가장 하위의 귀신은 그들 자신으로는 권세도 없고 생각도 거의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할 일을 항상 지시 받는다.

예수님은 내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가 누구든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통치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격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품행(아나스트로페:품행,처신,행위,대화)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기만적인(아파네:현혹,기만적,속일 수 있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엡0423. 그리고 너희 이해력(누스:지능,마음,의미,이해,이해력)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아나네오오: 새롭게 하다,갱신하다,개혁하다,다시 새롭게 하다).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느니라.

Ω엡0425. 그러므로 거짓을 치우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과 진리(진실)[알레데이아:알레데스(참된,진실한)에서 유래,진리,참되다,참되게,진실성,사실]를 말하라. 이는 우리는 서로간에 지체들임이라,

엡0426. 너희는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태양으로 하여금 너희의 분노 위에서 내려가게 허용치 말라,

엡0427. 또한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 자리(토포스:지점,장소,조건,기회,연안,허가,평원,지역,바위,방,어디)를 내주지 말라.

따라서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은, 믿는 자들이 구원의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을 때, 믿는 자들도 주관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허락만 한다면 지배합니다.

동의, 허락, 무지, 불순종 등이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Ω1요0518.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누구든지 죄짓지(빗나가지) 않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그는 그 자신을 지키노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1요0519.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과, 온 세상은 사악함(포네로스:아픈,악한,불행한,병든,비난받을 만한,버려진,악독한,유기된,해독,악독,죄,마귀,죄인들,슬픈,해로운,추잡한,간악한) 중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모르거나, 그것들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그들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에 따라 믿는 자들의 권세를 하위의 3가지 부류의 세력들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3계급에 속한 마귀들의 활동을 묶으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1619.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니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지 천국에서 묶이며, 또 네가 땅에서 푸는(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파괴하다,풀다,놓다,융해하다,놓아주다) 무엇이든지 천국에서 풀리느니라.

Ω마1818.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천국에서 묶이느니라. 또 너희가 땅에서 푸는(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파괴하다,풀다,놓다,융해하다,놓아주다) 무엇이든, 천국에서 풀리느니라.

사2222.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3.권세(권능)들 ;**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Ω골0213. 그리고 너희에게서 모든 범법들을 사면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며 우리에게 반대적인(휘페난티오스:반대하에,반대하는,적수,반대자) 손으로 쓴 (케이로그라폰:손으로 쓴 것,자필증서,서류,기록이나 증서,증명) 법령[도그마:(시민의,의례적인,교회법상의) 법,칙령,법령,포고,의견,견해]들을 문질러 지우셔서(엑살레이포:더러움을 없애다,없이하다,지우다,닦아 없이하다,눈물을 닦다,죄를 용서하다),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와 함께 소생시키셨느니라.

골0214.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아, 그것을 길에서 치우셨느니라,

골0215. 그리고 방백(아르케:시작,우두머리,모퉁이,첫자리,방백,권세,주권,원리,통치)들과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들을 약탈하신(아페크뒤오마이:전적으로 빼앗다,약탈하다,망치다,버리다) 후에, 십자가 안에서 그들에게 개선(凱旋)행진 하셔서(드리암뷰오: 환호의 행진을 하다,정복하다,승리를 얻다,승리하다), 그분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복종해야 합니다 옛날 정복자들은 패전국의 왕과 그 정사들을 포로로 잡아와 개선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였습니다.

**4.정사(방백)들**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이들은 다른 계급들로부터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권세도 없고 자기자신들의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악령의 4부류 <하워드 피트만>**

**둘째 하늘의 악령들**

천사들이 종류별 악령을 하나씩 나에게 지적해 주자,

나는 곧 이들 사이에는 사회적인 계급, 또는 지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위 계급에 있는 자들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보였고, 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악령들은 반 인간, 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악령들은 지상 세계에 존재하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악령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1. 계급이 가장 높은 자들은 전쟁의 영들(the warring demons)로, 사탄의 부하들 중 ‘정수’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둘째 하늘과 지상 세계를 항상 무리 지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혼자 다니는 법이 절대 없다.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악령들은 길을 비켜 주었다. 전쟁의 영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보여졌다. 키가 아주 크다는 것만 빼면 사람과 다를 점이 없었다. 약8-12피트 정도 되는 키로, 우락부락하고 잘생긴 모습은 마치 거대한 덩치의 운동선수같은 모습이었다.전쟁의 영들은 모두 청동색을 띄고 있었다.

(영계에 대해서 내가 묘사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수 있었던 악령들의 모든 형태나 모습을 다 묘사할 수가 없다. 이 책에 언급한 악령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류들이 있다.)

2)둘째로 강력한 악령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악마들은 모두 둘째 계급에 속해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우두머리는 탐욕의 영이였고, 그 외에도 증오, 색욕, 분쟁의 악령들과 몇몇 다른 악령들이 있었다.

3)셋째 지위에 있는 악령들은 모습이 가지각색이었다.

어떤 자들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어떤 것들은 반인 반수의 모습이었다. 어떤 것들은 동물의 모습이었다. 이 악령들은 마법이나 마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 계급에는 그 외에도 두려움의 영들과 자학의 영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는 능력을 가진 귀신들, 지상 세계에 유령으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악령들 등이 있었다. 사탄 숭배자들을 조종하는 악령들도 이 계급에 속해 있다.

4)넷째 계급에 있는 악령들은 모두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그룹에는 살인, 잔인성, 가학성, 그리고 그 외에도 학살의 영들이 있었다.

그 밑으로 가서 거의 끝에 다다르면, 악령들은 모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음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영들은 너무도 불쾌한 모습이어서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이 그룹의 영들은 성 도착에 전문성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악령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경멸을 당해, 둘째 하늘에서든 지상 세계에서든 항상 자기네들끼리 몰래 잠적해 활동한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악령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5)또 한 그룹의 악령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다.

그 기억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빼앗아 가셨고, 그들에 대해 많이 배우거나 기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다거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전문분야도 모르지만, 인간 육체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이 불가사의한 그룹은 다른 악령들과는 다르게 일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쓰임받는 것 같다. 위에 말했듯이, 나는 이 영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많이 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지금 독자들께 이야기하는 것만큼만 기억할 수 있고, 그나마 기억이 희미하다.

이들은 다른 악령들보다 더 상대하기 힘들다.

그들의 가장 큰 힘은 그들의 익명성에 있다.

이들 중에 한 악령은 사람 안에서 간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그룹의 악령 일부도 간질을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악령들이 간질의 원인이라고 확정지을 순 없지만, 그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 간질을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생생히 기억한다.

한번은 이렇게 둘째 하늘을 순회하면서 악령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괴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음울한 느낌이었다. 이 느낌은 우리가 둘째 하늘을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왔고,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궁금했다.

바로 이때, 천사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수호천사가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감정은 이 세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천사는 내게 이 둘째 하늘에는 사랑이 조금도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오! 이 모든 악령들은 사랑하지 않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고, 주인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이들은 영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첫째 하늘이라 일컬어지는 인간 세계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사랑을 우리 세상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둘째 하늘처럼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이나 사회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악령의 세계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때, 그들을 이끄는 동기나 열의에

대한 더욱 더 큰 의문이 생겼다. 그들은 왜 그렇게도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무엇이 일을 그토록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가?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명령을 빠르고 열심히 수행하였다.

세계의 그 어떤 군대 조직도 이토록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음을 자랑스러워 할 것 같은 정도였다. 어쩌면 그들의 열의를 유발하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는 심판과 형벌일 것이다.

그 오랜 옛날 삼층천에서의 첫 반란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할 수는 없는 장소와 위치에 이른 것 같다. 그들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이든 그 동기가 그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육신(사람)에 대한 엄청난 증오즐 발산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 자체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지만, 설명이 부족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어떤 일은 전부 다 보게 되었지만 기억할 수 없게 된 것도 있다.

높은 계급의 악령들은 둘째 하늘에 있는 나를 달가와 하지 않았다. 성령의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나를 막았을 것이다. 전쟁의 영들 중에 하나는 아예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심술궂게 나를 흘겨보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움찔거리지도 않았다. 그가 결국 맞서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오신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 계급의 마귀들은 나를 본 체도 안 하며, 내가 없는 것처럼 자기 할 일을 해 나갔다. 하위에 있는 악령들은 약간 나에 대해 두려움, 또는 나를 데리고 들어온 천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높은 계급의 악령들은 나와 천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하워드 피트만이 지은 “플라시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